



통일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

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
이경묵 영원무역 석학교수

남한과 북한의 인구관련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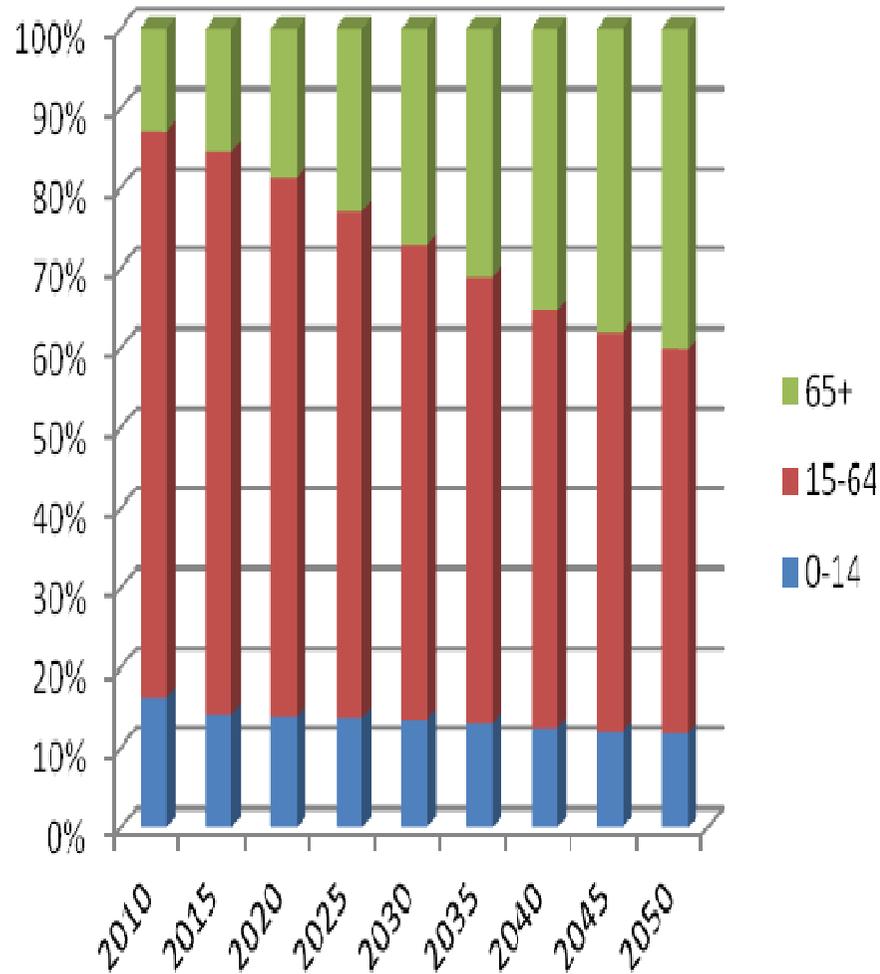
	북한	남한
총인구(2010년)	2,419만 명	4,941만 명
출산율(2010년)	2.00	1.29
기대 수명(2008년)	67.6	79.9
5세 미만 인구	167만 명	228만 명
인구 증가율(2011)	0.41	0.38

남북한의 미래인구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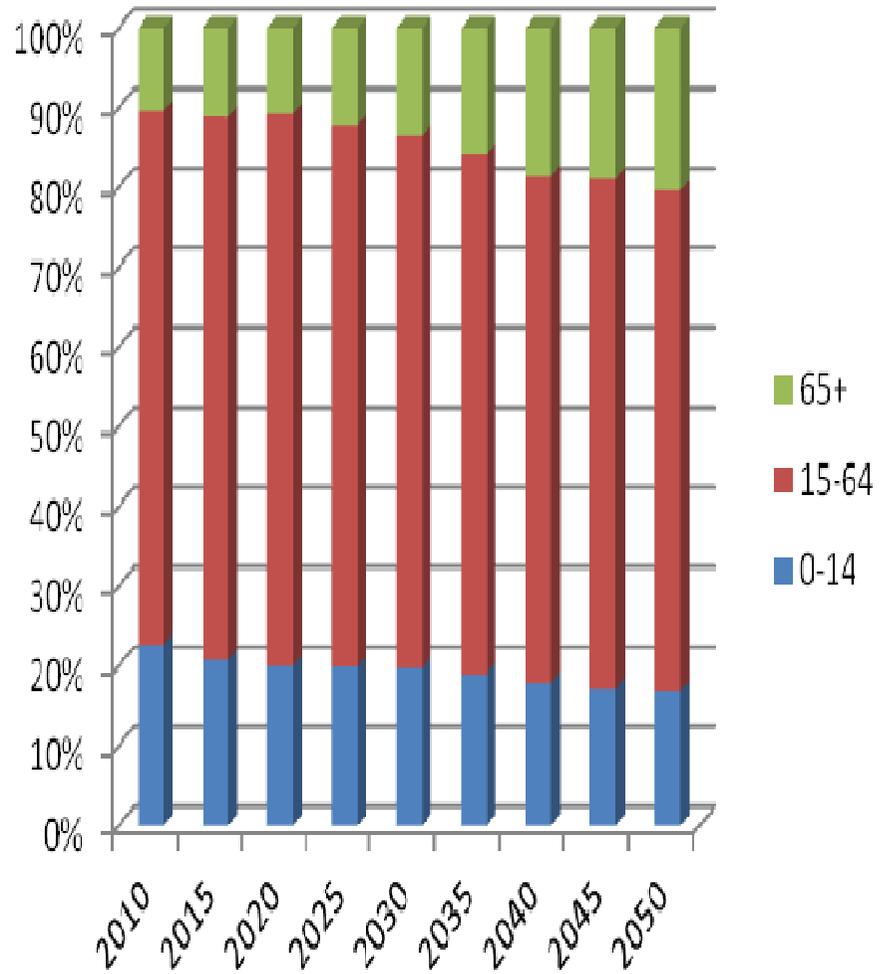
연도	북한	남한	북한/남한
2020	25,774	51,641	49.91
2030	26,692	52,961	50.40
2040	27,078	53,673	50.45
2050	27,427	52,828	51.92

자료: UN Statistics Division, 인구 단위: 천 명, 비율: %

남북한 인구 구성의 변화



남한



북한

인적자원측면에서 통일은 대박일까?

- 생산요소로서의 인적자원
 - 북한에서 교육과 근로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원의 질에 따라, 통일방식에 따라 대박 여부가 달라짐
 - 중국/홍콩식 통일이 되면 북한 노동인력의 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낮은 상태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임
...남한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높음
- 시장으로서 인적자원
 - 인구 7500만 규모의 시장 (세계 21위)
 - 젊은 소비층 비율의 증가

북한에서의 중등 교육

- 11년간 무상 의무교육 + 높은 문자해독률
 -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산업 인력 양성
 - 출신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의지가 남한에서만큼 높지는 않을 것임
- 공교육의 질
 - 교육 예산, 시설, 기자재의 부족
 - 교원들의 부업활동
 - 학생들의 노력 동원, 군사 훈련 참여, 가족부업참여
- 사교육의 양과 질
 - 남한에서만큼 사교육이 확산되어 있지 않음

영재교육과 고등교육

- 1984년 이후 영재교육
 - 전국에 200여 개의 제1중학교: 남한의 과학고
 - 외국어학원
 - 혁명학원: 만경대혁명학원 등
- 북한의 고등교육
 - 낮은 고등교육 취학률: 북한 19%, 남한 95%, 중국 23%, 일본 58%, 러시아 75%
 - 과학, 기술인력의 비중이 높음
 - 고등교육의 질이 높지 않음
 - 출선성분 중시, 시설/기자재/우수교원부족,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지

대졸자 중 인문학/과학기술 전공자 비중

국가	인문학	과학 기술
북한	4	58
한국	18	34
일본	15	21
독일	16	25
프랑스	11	27
러시아	3	27
체코	8	24
폴란드	9	17

북한의 직업훈련 교육 1

- 1990년부터 '전 인민의 인텔리화'정책
 - 중등교육 과정에서 실업계 교육 폐지
 - 1990년 헝가리, 폴란드, 러시아는 실업계가 77.5%, 76.5%, 43.3%였음
- 양성소: 자격급수를 주는 직업기술교육기관
- 기능공학교: 취업 전 기술 교육. 선반공, 용접공, 등 기능수준이 높은 인재 양성
- 산업체부설학교: 공장대학, 농장대학, 어장대학 등 산업체 부설에서 정규 학사학위 수여
- 문제점: 직업선택자유 부재, 생산설비노후화, 학생들과 교원들의 의욕 부족, 정치사상 교육, 집합교육

북한의 직업훈련 교육 2

- 영어 교육
 - 평양외국어대학,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에 영어과 설치 운영
 - 외화벌이, 해외 진출 등 개인 발전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영어 학습이 인기
- 정보통신 기술교육
 - 남한의 과학고에 해당하는 곳에서 컴퓨터교육
 - 199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 신설
 -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분야 집중
 - 문제점: IT인프라 미비, 체제유지 위한 인터넷 접속 제한

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

- 문제점
 - 제조업의 붕괴로 인적자원 개발 기회 부족
 - 자기개발 인센티브 부족: 활용처 부족, 출신성분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 중요
 - 직업, 이직 자유 부족
 - 장기간에 걸친 군 복무: 18~25세
- 희망: 시장경제의 진전
 - 2009년을 기준으로 지방 산업 공장의 23.6%, 중앙 공업 공장 중 21.4%, 국영 상점 중 51.3%, 식당의 58.5%, 목욕탕·미장원·이발소·당구장 등 서비스 업체 중 46.7%, 무역 회사 중 41.0%가 사실상 개인에 의해 운영
 - 배급시스템의 붕괴로 장마당 활성화

통일대비 북한 인적자원 개발방안

- 교육 시설과 기자재 지원
 - UNICEF, UNESCO, 유엔합동호소(CAP)를 통한 지원
 - 남한이나 외국 NGO를 통한 지원
 - 교과서 용지, 학용품, 급식,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
- 교사 지원 및 고등교육 지원
 - KOICA를 통해 남한의 남아도는 초·중등학교 교원지원 + 북한 교원 대상 재교육
 - '평양과학기술대학교' 모델 확산
 - 남북한 대학간의 자매결연, 교수 및 학생 교환
 - 한국폴리텍대학과 북한의 전문기술학교/공장대학과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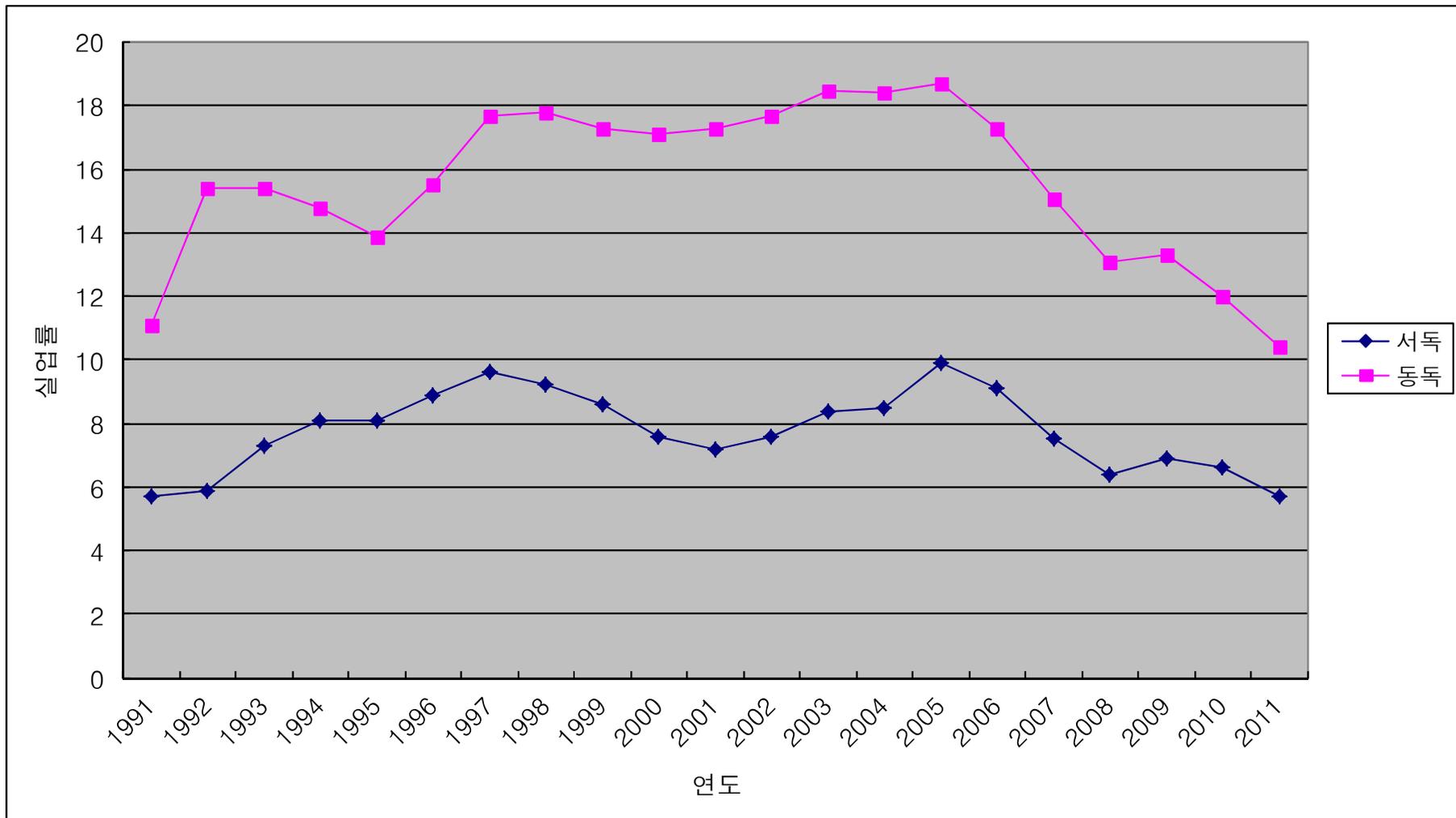
통일대비 북한 인적자원 개발방안

- 통일 이후 활용할 교재와 프로그램 준비
 -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초·중등 교육 교재 준비
 - 통일 이후 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
 -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직업능력향상 교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
 - 북한 주민들을 관리자나 경영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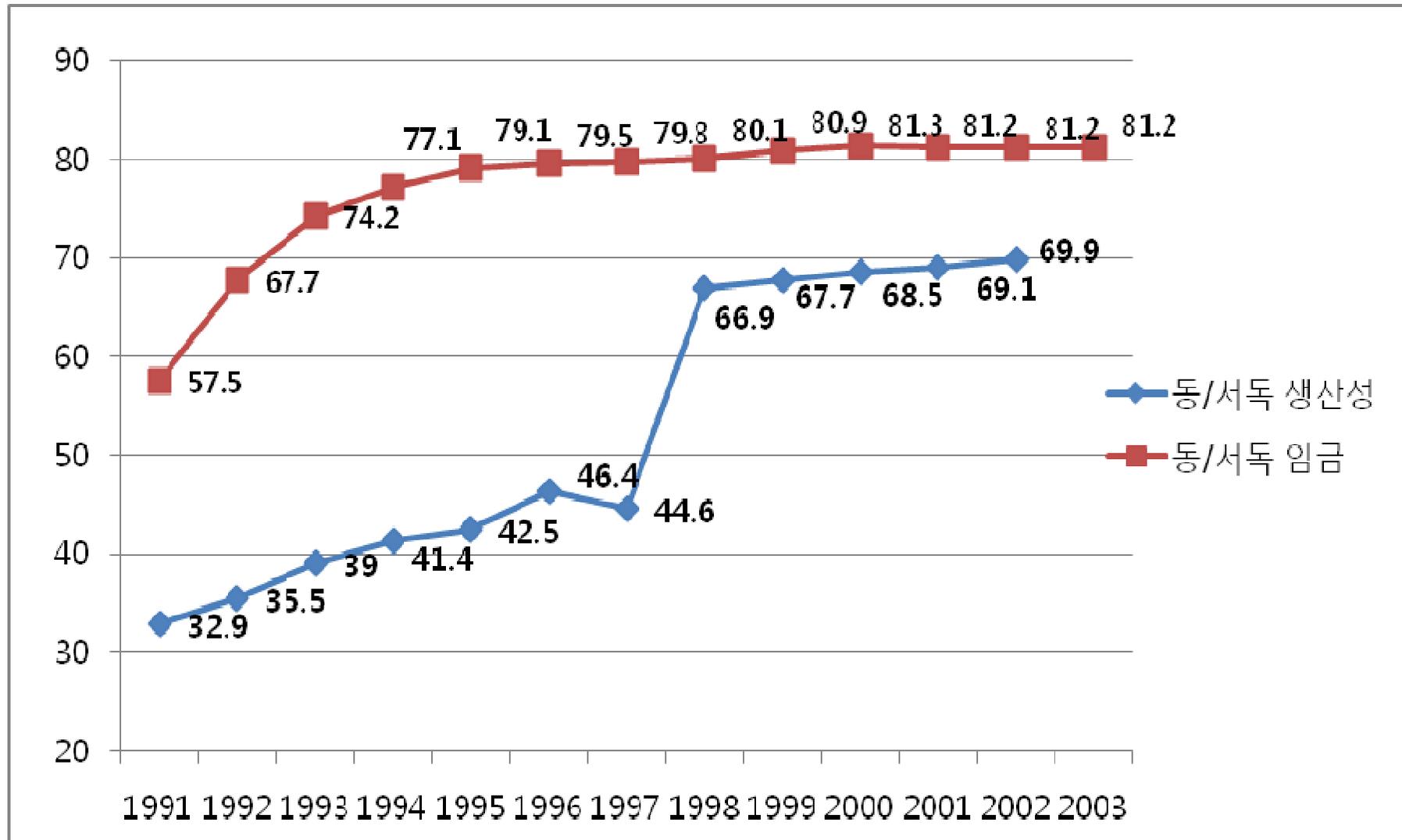
통일을 대박으로 만들려면?

- 통일 이전 북한의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놓아야 함
- 독일식 빅뱅형 통일보다, 중국과 홍콩의 통일 모델에 따라 점진적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
- 정부의 전향적 자세 필요
 - 적극적인 남북경협, 교육과 훈련 지원
 - 정부에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하는 전담부서 설치 필요

통일 이후 동서독의 실업률



통일 이후 동서독의 상대적 생산성과 임금



감사합니다.